



전북, 미래 식품산업 준비

도, K-FOOD NEXT 포럼

AI·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커스텀푸드 산업 거점 육성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17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비즈니스센터에서 'K-FOOD NEXT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AI가 이끄는 커스텀푸드(개인맞춤형식품) 제조 혁신'을 주제로 열렸으며,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한국식품연구원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공동 주관했다. 푸드테크 관련 기업, 대학, 유관기관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해 산업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포럼은 급변하는 식품산업 환

경 속에서 AI 기술을 접목한 커스텀푸드 제조 혁신의 방향과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계와 연구기관, 정책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푸드테크 기술 트렌드와 정부 정책 대응 방향, 산업 확산 전략 등을 논의하며 전북형 커스텀푸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행사에서는 맞춤형식품 분야 선도기업인 메디솔라 이문구 대표가 '커스텀푸드의 스마트 제조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월드푸드테크협의회 이상준 실장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이은주 PD가 정부의 푸드테크 정책 방향과 산업 육성 전략을 공유했다.

이어 열린 패널토론에서는 한국식품연구원, 전주대학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AI 기반 식품제조 기술의 확산과 산업현장 적용 전략에 대한 실질적인 의견을

나눴다.

전북자치도는 '지역과 산업이 건강 한 맞춤형 케어푸드 산업 벨트 조성'을 중장기 비전으로 설정하고, AI와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을 결합한 커스텀푸드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총 1,875억 원 규모의 14개 연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2030년까지 리딩기업 3개 육성, 관련 기업 40개사 확대, 2,300명 신규 고용 창출로 전북을 커스텀푸드 산업의 거점으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맞춤형 식품 수요가 급격히 확산되는 시대에 다양하고 유연한 생산 공정은 식품산업 미래를 열어갈 핵심 분야"라며 "산학연 협력을 통해 맞춤형 식품 분야에 AI 기술 연계 등 혁신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순창 장류축제 체험테이블이 그린 '고추장'



‘제20회 순창 장류축제’가 지난 17~19일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과 발효테마파크 일원에서 열렸다. ‘다함께 고추장 만들자’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체험장 테이블이 ‘고추장’이란 글자 모양으로 배치돼 있다. <사진=순창군청 제공>

AI·로봇 시대 ‘활짝’... 전북과학축전 성료

‘과학이 움직이는 세상, 기술이 여는 미래’ 주제

전북과학기술인대상 시상식·체험 투어 등 진행

도민·학생에 풍성한 볼거리·배움의 기회 제공

전북의 대표 과학축제인 제19회 전북과학축전이 지난 17~19일 전주대학교 대운동장에서 ‘과학이 움직이는 세상, 기술이 여는 미래’를 주제로 성대하게 열렸다.

이번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하고 전북테크노파크가 주관했으며, 개막식에는 김중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김희수 전북특별자치도 의회 부의장, 운영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등 주요 인사를 비롯해 과학기술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관련사진 3면>

개막식은 제5회 전북과학기술인대상 시상식, 개막 퍼포먼스, 과학 체험부스 투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올해 과학기술인대상 수상자로는

지역 산업 발전과 기술혁신을 이끌며 도내 기업 성장에 기여한 △(주)다이내믹인더스트리 김현수 대표이사, △전북대학교 운영상 교수, △한국식품연구원 정창화 본부장 등 3명이 선정돼 영예의 메달과 상패를 수여받았다.

특히 올해 축전은 전주대학교 대운동장으로 장소 옮겨, 약 110개의 과학 체험부스를 운영함으로써 관람객들이 더욱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과학의 세계를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

가을 햇살 아래 펼쳐진 야외 행사장은 실내 전시의 한계를 넘어선 개방감과 자유로운 체험 분위기로,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 중 ‘피지컬 AI 창

의과학탐험대’와 ‘사이언스 마이크’는 LEGO 기반 로봇 프로젝트를 통해 인공지능·물리·코딩 원리를 배우며, 학생들이 직접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시간으로 눈길을 끌었다.

이외에도 ‘사이언스 일투전’, ‘버블랩쇼’, ‘숨사탕 퍼포먼스’ 등 흥미진진한 과학문화 공연과 ‘에그드랩 챌린지’ 등 체험형 프로그램이 축제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축전은 19일까지 3일간 진행됐다.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와 공연,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도민과 학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배움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은 “개막 첫날부터 이어진 폭발적인 관심과 참여는 전북 과학기술의 미래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를 보여준다”며 “남은 일정 동안에도 과학이 생활 속에서 살아 숨 쉬는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피지컬 AI 기술 확보 중장기 전략 마련해야”

민주 이원택 의원, 농진청 국감서… ‘내년 신규사업 제안 예산

정부안 심의 과정에서 삭감… 피지컬 AI 중요성 제대로 설득 못해

전북자치도 추진 사업과의 협력 기회 놓쳐… 양 기관간 협력율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은 지난 17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농촌진흥청은 피지컬 AI 기술 확보를 위한 중장기 전략과 구체적 실행 로드맵을 위한 예산 확보와 공동 연구개발(R&D), 지자체 협력 계획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의 이원택 의원은 이날 농진청 국정감사와 관련해 “미국·EU·중국 등 주요국이 ‘피지컬 AI’를 농업 혁신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 농진청은 전략없이 뒤처지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어 “농진청은 ‘피지컬 AI 수준의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고 답변하는 등 글로벌 기술 경쟁의 흐름에서 뒤쳐진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며 “특히 농진청이 2026년 신규사

업으로 제안한 ‘차세대 농작업 자동화 및 초지능 농기계 기술 개발’ 예산 75억원이 정부안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사실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예산 삭감은 단순한 재정 문제를 넘어 농진청이 ‘피지컬 AI’ 기술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정부와 관계 부처에 제대로 설득하지 못한 결과”라며 “국가 농업 R&D 컨트롤타워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2024년부터 전 세계가 피지컬 AI 기술로 전환하는 시점에 3년간의 공백이 생긴다면 우리 농업은 미래 기술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할 위험이 크다”며 “농업이 또 한 번 국가 R&D의 변두리에 머무르지 않도록 미래 농업 기술혁신을 위한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지난 17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관련 예산 삭감은 전북자치도가 추진 중인 ‘협업지능 피지컬 AI 기반 소프트웨어 플랫폼 연구 개발 생태계 조성사업’과의 협력 기회를 놓친 결과”라며 “농진청의 대응 지연으로 전북도의 실증 테스트베드와 고성능 연산 플랫폼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양 기관간 협력을 촉구했다.

/권희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군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고창군의회가 만들어가겠습니다.

의회 고창군의회

